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6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Column

영화와 TV 드라마 촬영의 메카, 인천



Interview

인천문화재단 정재우 사무국장과 만남



IDI 소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진
초청 현안지역 시찰 및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
배)은 법정 기본계획이
나 국책사업 추진계획들
과의 ...

Zoom 人



마초 액션스타 장동휘
실버스타 스탈론이 월남
전에서 제대한 후, 주윤
발은 성난개비를 물었고,
...

Zoom INcheon



강화소리채형박물관_
관계와 욕망을 벗어나
소리와의 행복한 인연
걸모양만 달라지면 영
락없는 미군부대 막사
모양이더군요. 옆에
당그러니 서...

도시동향



영화와 함께 길을 나
서다_세계적인 역사
문화도시 북경(北京)
북경(北京, 베이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
도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

IDI 연구



인천지역 한류관광 실
태 및 대응정책 방안
이 연구는 2006년 수
행된 연구로 당시 드
라마세트 방문 형태로
나타났...

인천지표



인천의 영화·드라마
촬영장소
최근 극장가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영화 '그
대를 사랑합니다'(감
독 추창...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6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영화와 TV 드라마 촬영의 메카, 인천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인

천이 영화와 드라마의 로케이션 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윤사마' 배용준이 출연한 <드림하이>, 원빈의 맥주광고, 저예산 영화로 큰 성공을 거둔 <그대를 사랑합니다>까지 2010년 한 해 동안 인천을 찾은 영화, TV 드라마, 광고 CF가 총 51편에 이른다. 이는 인천영상위원회가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한 작품 수로 실제 인천 곳곳에서 촬영했지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천영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2007년 이후, 인천을 촬영지로 선택한 작품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 5편, 2008년에 27편, 2009년에 47편 등 로케이션 지원을 받은 작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근래에 인천을 찾는 영화와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서울의 인접지역으로서 인천은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고속도로와 전철을 이용해 1시간 안에 방문할 수 있는 인천은 다른 지방도시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영화산업에 표준근로계약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작자에게는 촬영일수 단축이 제작비용 절감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부산과 전주 등을 주요 로케이션 촬영장소로 선호했던 상당수의 제작사가 인천을 대체장소로 선택하는 추세이다. 둘째, 인천은 매우 다채로운 로케이션 촬영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동북아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우리나라 최초이자 동양 최대의 갑문식 도크를 자랑하는 인천항. 그리고 강화도를 비롯한 서해안 일대의 아름다운 섬과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은 물론 개항 당시의 역사적 흔적이 보존된 중구와 동구 등의 구도심 일대가 영화 제작사가 즐겨 찾는 촬영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서울과 인접한 인천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영상위원회를 비롯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로케이션 촬영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촬영에 따른 교통통제와 민원처리 등의 행정업무, 엑스트라 배우와 기자재 동원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 소방본부, 경찰청, 학교, 군부대 등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내는 복잡한 업무를 신속하게 대행함으로써 제작사가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는 인천 곳곳에 대한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작사가 원하는 촬영장소를 더욱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 대부분이 서울에 밀집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이라는 인천의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촬영현장, 그리고 현장 중심적 행정지원은 앞으로 인천이 로케이션 촬영장소로 더욱 활성화되는데 탄실한 자산이 될 것이다.

영화와 드라마의 로케이션 촬영이 많아질수록 인천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가치 제고, 그리고 촬영장소의 관광 자원화 등 상당한 부대효과를 저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지 촬영을 위해 제작사가 인천을 방문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숙박비, 식비, 교통비, 공간대여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실제로 2009년에 인천영상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팀이 인천에서 촬영하면서 소비한 비용이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의 추세대로 로케이션 촬영이 활성화되어 외국의 대형 영화제작사까지 유치한다면 수백억 원의 추가적인 소비지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밖에 엑스트라 동원, 촬영장비 대여 및 안전관리 업체 등 아직 인천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관련분야 산업의 부흥을 통한 경제효과와 고용확대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한 인천지역의 홍보효과는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최근 들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천이 로케이션 촬영장소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인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고비용의 도시홍보 영상물이나 구태의연한 슬로건 등의 직접적인 홍보수단보다 그 효과가 월등한 영화와 TV 드라마에 인천을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인천 밖의 사람들에게 인천을 알리고 인천시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인천 홍보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중구 일대의 근대 건축물이 사진 동호회의 단골 방문지로 부각되는가 하면, 인천아트플랫폼의 방문객 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도 영화와 드라마에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빈도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영화 <매트릭스> 촬영지였던 호주의 시드니는 영화 마니아들의 단골 여행지로 주목받았으며, 핀란드의 헬싱키는 일본영화 <카모메 식당> 이후 일본 중년 여성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기도 했다. 바야흐로 인천은 영화와 TV 드라마 산업분야와의 관계에서 생산적인 선순환구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제작사는 제작사대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인천은 인천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로케이션 촬영은 그동안 영화·영상 산업의 불모지였던 인천이 새롭게 주목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인천이 영화와 드라마 현지촬영을 매개로 영상도시와 문화도시, 나아가 창조도시로 거듭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먼저, 공공적 지원의 확대이다. 현재의 로케이션 촬영지원은 일종의 행정지원으로 저예산 사업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지역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그야말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지원체계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인천영상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인천 촬영 작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보강하고, 나아가 외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세금감면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제작사는 물론 외국의 대형 제작사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반작업 지원 스튜디오, 장비 대여업체, 엑스트라 기획사 등의 주변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천지역에 기반을 둔 관련 사업 분야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유행처럼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유치하고자 힘써왔던 영화와 드라마 세트장 조성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자체가 임시적일 수밖에 없어 2~3년 후에는 유지가 불가능한 국내 대다수 세트장이 해당 지자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영화 상영이나 드라마 방영 시점에만 잠시 반짝할 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건설비용이 드는 세트장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외국의 선진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공적인 세트장보다는 자연적인 풍경이나 도시경관을 활용한 경우가 지속 가능한 경제효과와 원천이 된다.

한편, 영화·영상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영상문화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07년 인천영상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과 동시에 인천에는 예술영화관인 영화공간주안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의 자발적인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렇듯 지난 4년 동안 인천영상위원회,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인천의 영화·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각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해당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영화·영상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효과는 물론 시민이 일상에서

영상문화를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인천이 영화와 드라마의 로케이션 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윤사마’ 배우준이 출연한 <드림하이>, 원빈의 맥주광고, 저예산 영화로 큰 성공을 거둔 <그대를 사랑합니다> 까지 2010년 한 해 동안 인천을 찾은 영화, TV 드라마, 광고 CF가 총 51편에 이른다. 이는 인천영상위원회가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한 작품 수로 실제 인천 곳곳에서 촬영했지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천문화재단 정재우 사무국장과의 만남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6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독립영화의 메카로 성장해야 진정한 '영상도시' 구현될 것

인천영상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4년을 맞이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후발주자인 셈이지만 가시적인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인천영상위원회 정재우 사무국장을 만나 영상위의 역할과 목표, 인천이 촬영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영상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울의 영화제작사가 시나리오에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 영상위원회에 연락하면, 영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진 자료를 보내고 다시, 제작사에서 연락을 합니다. 이후 실무자들이 와서 공간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면 감독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감독이 보고 흡족하면 확정 헌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촬영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때 장소섭외, 도로점용 등 행정적인 절차를 대신 밟아주는 것이 영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 정재우 사무국장

Q. 대략 1년에 몇 편정도 장소 섭외요청이 들어오나요?

1년에 150건 정도의 장소 섭외 요청이 옵니다. 한주에 서너개씩은 들어오는 셈이고, 작년의 경우 51편 정도를 촬영했습니다. CF, 드라마, 영화 등을 포함한 숫자죠.

Q. 인천이 영상 촬영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인천에서 촬영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인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곳이 남이섬밖에 없습니다. 그 유명했던 드라마 '주몽' 촬영지도 1년만 지나면 효력을 잃고, 그새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와 논의 중인 것이 '시네 로드맵'입니다. 도보로 촬영지 곳곳을 체험해보고,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구상중인데, 그러기 위해선 소위 말하는 대박 터져주는 영화가 나와야겠지요. 그러한 촬영지에 단순한 포토존이 아닌 DSLR로 찍을 때 셔터 스피드와 거리, 어느 영화장면에 어떻게 촬영한 것인지 설명해주거나 영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 영화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인천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도 사랑받을 것입니다. 문제점은 1년 365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예산문제에 직면하는 일이어서 관광공사가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Q. 인천은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부산 등에 비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천영상위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하곤 인천이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제작사 위치 때문에 서울, 경기를 따라잡기 힘들고, 시스템을 잘 갖춰진 부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인천이 많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영화 '친구'나 '해운대'로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은 촬영중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았습니다. 10년동안 쌓아온 부산의 힘이지요. 그러나 오히려 인천은 부산에 없는 공함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더 가까운

인천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능안 삼거리에서 도로를 막고 촬영하는 썸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찍는데 중부경찰서 등에 한시간당 백권이 넘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행정하는 사람을 탓할 일도 아니고, 부산처럼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이 영상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인천을 대변하는 대박영화 몇 편이 나와야 긍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영화들이 인천에 와서 영화촬영에 쓰는 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전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급액은 최대 1억원입니다. 얼마전 영화 '통증'이 1억 4천을 썼고,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5천3백만원을 환급해주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심사위원은 저를 포함해 인천 출신 영화인과 영화관계자 등 총 7명이 심사를 맡고, 기준은 작품성, 흥행성, 인천 홍보성 등입니다. 경기가 20%, 경남이 40% 환급, 부산은 3천~1억 사이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인천이 후발주자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최대 1억의 토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Q. 당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인 인천문화재단 영상위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상위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케이션지를 활성화해서 도시가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 상업영화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상도시는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촬영만 하는 공간으로서의 인천이 아니라 독립영화나 저예산영화를 많이 찍는 사람들이 정주하면 좋을 곳이 인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활성화 되면 인천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관객과의 대화, 제작지원자 상영회 등등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저예산 영화를 만드는 움직임도 존재하고 이러한 것이 어우러질 때 그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 부끄럽지 않을 영상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에서 독립영화를 찍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독립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주거지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곳이 인천입니다. 독립영화 평균관객이 7천~8천입니다. 그래서 1만명이 넘으면 대박친 것으로 간주하는데 5천이 서울에서 상영하고, 2천이 전국에서 나눠보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영상도시는 서울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산도 영상도시가 아닌 것이지요. 앞으로도 고급문화는 서울에서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에서 이런 독립영화에 대한 수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의 영화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업영화 뿐만 아닌 독립영화를 인천에서 찍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서울로 가는 것은 배신이 아닌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 속에 인천 출신으로, 인천에서 영화를 찍었고, 인천영상위 지원자가 첫 영화라는 것은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오히려 장하다고 격려해주고, 대신 영화는 인천에서 찍어라 해야 맞는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영화를 찍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화하는 사람에게 인천이 고향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업영화를 하고 있더라도 인천에 빚진 느낌, 그래서 인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길 바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영상도시의 청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독립영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고, 도약을 해야 하는데, 인천시 재정상황과 모든 것이 맞물려서 고비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영상도시는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 대답 : 손 동 필(도시기반연구부 책임연구원)

■ 기록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인천영상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4년을 맞이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후발주자인 셈이지만 가시적인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인천영상위원회 정재우 사무국장을 만나 영상위의 역할과 목표, 인천이 촬영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6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진 초청 현안지역 시찰 및 간담회 개최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진 초청 현안지역 시찰 및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법정 기본계획이나 국책사업 추진계획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주요 국가정책적 의사결정에 인천광역시 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고자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를 위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원장 및 관련 연구진을 인천으로 초청, 인천지역 교통부문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책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시찰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경인아라뱃길, 청라지구(제3연육교/제2외곽순환도로/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예정지), 인천항, 월미은하레일 등을 시찰하고, 해당기관 직원으로부터 현황을 듣고, 우리 연구원 관련 연구자로부터 지역현안 쟁점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인천문화재단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현장시찰 내용과 참가자들의 소견을 정리하는 한편, 국가단위 상위 기본계획이나 국책사업 추진계획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날 김민배 원장은,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①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조성, ②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제2외곽순환도로 조기 개통, ③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3연육교와 강화신대교 건설, ④내항재개발 및 국제여객부두 건설 등을 제시하고, 양 기관의 공동연구 및 집중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6.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6월 7-8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에 한겨레평화연구소 및 태평양세기연구소와 더불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

인천광역시의 한겨레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가 긴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으로서 "서해평화와 동북아 협력 : 대결과 분쟁을 넘어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김민배 원장은 2일자 개회사를 통해, 1992년 한중수교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은 인천이 국경과 분단을 넘어서 상호협력으로 경제와 교류가 활성화되는 접경협력의 세계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최근 한반도 서해지역에서의 긴장상태로 인해 주변국과의 협력이 주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그 해법이 될 서해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3세션 "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프로세스의 모색"에서 토론자로 나선 우리 연구원 강승호 연구위원은 서해5도를 해양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어 처음부터 남북 공동으로 시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먼저 인천이 중심이 되어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증 받도록 IUCN(국제자연보호연맹) 등 국제기구의 인증을 추진하는 등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가 우선이며, 이 과정에 중앙정부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안발안국토연구원 연구교류 협약 체결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과 지난 6월 1일, 하버파크호텔 릴리홀에서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 조인식은, 우리 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온 국토연구원의 연구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연구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특히,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토지정책, 교통·건설경제 등의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교류와 보다 견고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와 더불어, 양기관의 도시재생 관련 최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국토정책 지식공유 워크숍>이 함께 개최되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윤환 연구위원이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국토연구원에서는 이왕건 도시재생전략센터장이 "도시균형발전과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김민배 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공부들이



민간의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용적율을 완화해 주는 등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며, 개별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 연구원은 올해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국가 상위 기본계획이나 국책사업 추진계획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들과의 연구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우리 연구원 지역사회와의 직접 소통으로 지역현안 연구과제 168건 발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형 창조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강조

-인천관광공사, "농축산물을 활용한 인천특산 먹거리 관광상품화 방안" 필요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최근 5월 31일까지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10개 군구, 시민·학술단체, 여성계, 산업단지 대표, 공사·공단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정책수요를 직접 청취하고 168건의 연구과제를 수집·발굴했다.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제안된 연구과제 중 현재 90여건이 연구사업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조만간 사회복지·교육문화분야 연구자의 신규채용 및 올해 신설된 기획본부의 인원충원이 완료되면 그 수치는 100여건을 훨씬 상회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지난 5월 31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관광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간담회에서 이종철 청장은 ①IFEZ 개발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 ②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항만기능 역할 정립을 위한 개발방향, ③IFEZ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등 10건의 연구과제로 제안했다. 인천관광공사와의 간담회에서 김길중 사장은 ①인천시 관광산업 파급효과 및 관광통계 구축 연구, ②섬 관광자원 스토리텔링화 방안, ③환승관광 및 수도권 관광객 인천 연계 활성화 방안 등 9개의 연구과제를 제안했다.



■ 인천환경공단과 시장현안 간담회 개최

-인천환경공단,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역할 재정립" 촉구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5월 30일, 인천환경공단 대회의실에서 <인천환경공단과 함께하는 시장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환경공단(이사장 박남규)은 ① 2012~2016년 공단 중기 재정 추이에 관한 연구, ②정부 물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시장여건 변화 및 인천환경공단 역할에 관한 연구, ③대도시에서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연구과제로 제안했으며, 90여건이 연구사업으로 연구과제로 제안했으며, 더불어 정부 정책동향과 해외선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천환경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은, 연구수행기간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제안된 과제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하고, 연구자 독자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과제를 제안한 기관의 담당자와 협업 및 협동으로 과제 수행방법까지 다양화한만큼, 인천환경공단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해 갈 것을 약속했다.



■ 인발연연세대 통일연구소·인천상공회의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는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25일, 인천 경제계 인사 대상, "통일한국과 경제수도 인천"을 주제로 남북한 통일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코자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이상근 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의 합리적 지출을 통한 남북한지역의 상생과 공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나친 통일비용의 지출을 막는 최선의 길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산·유통활동을 쉽게 만들어주는 한편, 북한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부를 축적하도록 돕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 연구원의 강승호 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통합과 인천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협력을 통해 통일을 위한 안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인천이 서해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최적의 교류협력 거점임을 주장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법정 기본계획이나 국책사업 추진계획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주요 국가정책적 의사결정에 인천광역시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고자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를 올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정재우 사무국장과의 만남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6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독립영화의 메카로 성장해야 진정한 '영상도시' 구현될 것

인천영상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4년을 맞이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후발주자인 셈이지만 가시적인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인천영상위원회 정재우 사무국장을 만나 영상위의 역할과 목표, 인천이 촬영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영상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울의 영화제작사가 시나리오에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 영상위원회에 연락하면, 영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진 자료를 보내고 다시, 제작사에서 연락을 합니다. 이후 실무자들이 와서 공간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면 감독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감독이 보고 흡족하면 확정 헌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촬영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때 장소섭외, 도로점용 등 행정적인 절차를 대신 밟아주는 것이 영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 정재우 사무국장

Q. 대략 1년에 몇 편정도 장소 섭외요청이 들어오나요?

1년에 150건 정도의 장소 섭외 요청이 옵니다. 한주에 서너개씩은 들어오는 셈이고, 작년의 경우 51편 정도를 촬영했습니다. CF, 드라마, 영화 등을 포함한 숫자죠.

Q. 인천이 영상 촬영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인천에서 촬영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인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곳이 남이섬밖에 없습니다. 그 유명했던 드라마 '주몽' 촬영지도 1년만 지나면 효력을 잃고, 그새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와 논의 중인 것이 '시네 로드맵'입니다. 도보로 촬영지 곳곳을 체험해보고,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구상중인데, 그러기 위해선 소위 말하는 대박 터져주는 영화가 나와야겠지요. 그러한 촬영지에 단순한 포토존이 아닌 DSLR로 찍을 때 셔터 스피드와 거리, 어느 영화장면에 어떻게 촬영한 것인지 설명해주거나 영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 영화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인천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도 사랑받을 것입니다. 문제점은 1년 365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예산문제에 직면하는 일이어서 관광공사가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Q. 인천은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부산 등에 비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천영상위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하곤 인천이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제작사 위치 때문에 서울, 경기를 따라잡기 힘들고, 시스템을 잘 갖춰진 부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인천이 많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영화 '친구'나 '해운대'로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은 촬영중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았습니다. 10년동안 쌓아온 부산의 힘이지요. 그러나 오히려 인천은 부산에 없는 공함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더 가까운

인천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능안 삼거리에서 도로를 막고 촬영하는 썬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찍는데 중부경찰서 등에 한시간당 백권이 넘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행정하는 사람을 탓할 일도 아니고, 부산처럼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이 영상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인천을 대변하는 대박영화 몇 편이 나와야 긍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영화들이 인천에 와서 영화촬영에 쓰는 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전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급액은 최대 1억원입니다. 얼마전 영화 '통증'이 1억 4천을 썼고,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5천3백만원을 환급해주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심사위원은 저를 포함해 인천 출신 영화인과 영화관계자 등 총 7명이 심사를 맡고, 기준은 작품성, 흥행성, 인천 홍보성 등입니다. 경기가 20%, 경남이 40% 환급, 부산은 3천~1억 사이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인천이 후발주자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최대 1억의 토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Q. 당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인 인천문화재단 영상위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상위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케이션지를 활성화해서 도시가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 상업영화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상도시는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촬영만 하는 공간으로서의 인천이 아니라 독립영화나 저예산영화를 많이 찍는 사람들이 정주하면 좋을 곳이 인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활성화 되면 인천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관객과의 대화, 제작지원자 상영회 등등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저예산 영화를 만드는 움직임도 존재하고 이러한 것이 어우러질 때 그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 부끄럽지 않을 영상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에서 독립영화를 찍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독립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주거지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곳이 인천입니다. 독립영화 평균관객이 7천~8천입니다. 그래서 1만명이 넘으면 대박친 것으로 간주하는데 5천이 서울에서 상영하고, 2천이 전국에서 나눠보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영상도시는 서울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산도 영상도시가 아닌 것이지요. 앞으로도 고급문화는 서울에서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에서 이런 독립영화에 대한 수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의 영화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업영화 뿐만 아닌 독립영화를 인천에서 찍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서울로 가는 것은 배신이 아닌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 속에 인천 출신으로, 인천에서 영화를 찍었고, 인천영상위 지원자가 첫 영화라는 것은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오히려 장하다고 격려해주고, 대신 영화는 인천에서 찍어라 해야 맞는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영화를 찍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화하는 사람에게 인천이 고향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업영화를 하고 있더라도 인천에 빚진 느낌, 그래서 인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길 바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영상도시의 청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독립영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고, 도약을 해야 하는데, 인천시 재정상황과 모든 것이 맞물려서 고비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영상도시는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 대답 : 손 동 필(도시기반연구부 책임연구원)

■ 기록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인천영상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4년을 맞이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후발주자인 셈이지만 가시적인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인천영상위원회 정재우 사무국장을 만나 영상위의 역할과 목표, 인천이 촬영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강화소리체험박물관_관계와 욕망을 벗어나 소리와의 행복한 인연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6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강화소리체험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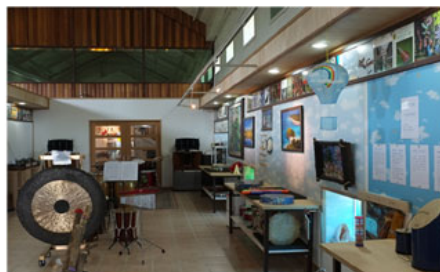
관계와
욕망을
벗어나

소리와의 행복한 인연



강화소리체험박물관 전경

겉모양만 볼라치면 영락없는 미군부대 막사모양이더군요. 옆에 덩그러니 서 있는 기와집 카페나 길 건너편에 마주서있는 알록달록 쌍둥이 중국집이 눈길을 더 당길 수밖에.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거기 선두리 야트막한 야산 초입에 미운오리새끼처럼, 거친 민낯으로 댕그러니 서있던 건물. 그러나 한 발짝 들어간 순간 거친 딱 요지경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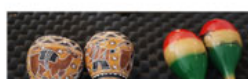
소리체험박물관.

서울 대 와 이 탈 리 아 에 서 공 부 하 고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조윤석 관장의 인생 제2라운드 작품입니다. “더 이상 음악을 현장에서 하기 힘들어 마련한 것이지요.” 연주회 포스터에는 바순을 들고 있는 젊은 날의 그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가 탄생의 순간에 내지른 소리, 연주 소리, 박물관 소리. 글을 쓰는 작가가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도 평생 소리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함이라.

요즘은 부쩍 소리가 부각되는 듯 하지요. 보는 즐거움을 내세운 비주얼 아이들이 ‘한물간’ 소리꾼들에 치여 투정을 부리는, 세상에 고목에 핀 꽃이 이리 아리따울 줄이야. ‘나는 가수다’에 소개된 노래의 음원판매량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헛된 과장이 아닐 듯합니다.

소리를 주제로 한 몇몇 박물관 중에서 이곳은 전공자의 기획능력을 확연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에 대한 체험뿐만 아니라, 과학, 역사, 상업적 맥락까지 짚어내고 있지요. 이런 마음 씀 덕에 어린이는 물론이고 노인들까지 만족도가 높을 것이지요. 1관은 하늘, 바다, 숲이라는 주제로 소리를 체험할 수 있지요. 도구를 몇 번 흔들면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울려나옵니다. 어른 양팔을 벌려야 다 잡을 수 있는 커다란 징을 한 번 치면 박물관 전체가 몇 분 동안 웅웅...중국악기인 탐탐이라고 하네요. 소나기를 불러오고, 주룩주룩 처마에 비를 내릴 수 있는 나무막대기 모양의 것, 빗소리를 전문으로 낸다해서 레인스틱(rainstick)이라 불린다죠. 선인장으로 만든 칠레의 민속악기입니다.



2관과 3관은 소리에 대한 과학과 악기를 중심으로 꾸며졌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축음기, LP판의 전신이라 할 만한 130년 된 독일제



오르골을 원음으로 듣는 행운도 맛볼 수 있는 곳이죠. 4관은 기술공간이지요. 어르신들에게는 타임머신입니다. 축음기, 제니스

라디오, 소니 워크맨 1호, 교환을 통하는 전화기의 역사가 한 눈에 들어오죠. 증장년층의 눈을 끄는 것은 핸드폰이겠죠. 팔독만한 핸드폰 초기모델부터 최근 제품이 나란히 있지요. 기술발전의 증표가 아닐까 합니다.

소리의 팡파탈 사이렌의 마성을 우습게 여기고 도전했던 트로이의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어리석음, 기산영수의 은자였던 소부와 허유가귀를 씻었던 결벽증적인 청빈함, 널려있는 러브호텔 칸칸에서 새어나오는 교성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욕망과 관계의 그물이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소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그 소리를 밖으로 표출할 수 없다.

하다못해 실날같은 소리라도 밖으로 표출하려면 실날같은 바람 한 가닥이라도 만나야 한다.

이럴 때 만남이란 얼마나 의미 깊고 소중한 것이냐” _ 이희수

도시의 삶은 관계와 욕망이라 하지요. 직장도 그렇지요. 섬에서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찻, 박물관기념품점에서 마라카스를 하나 사서 번뇌가 일어나거든... 살랑살랑 흔들려 휘이휘이 날려 보내시죠.

글 조승현 연구위원 사진 석중수 연구위원

선두리_보광호횟집

강화의 낭만적인 일몰과 함께 하는 환상적인 밴대이회&송어회

식도락가라면 지금쯤 꼭 찾을 음식으로 단연 '밴대이'를 꼽을 것이다. 밴대이는 특히 5월말~7월초, 산란기를 앞두고 있을 때 살이 적당히 올라 있어 제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인천, 특히 강화는 제대로 된 밴대이 맛을 보기에 좋은 곳이다. 싱싱한 밴대이회를 찾아 선두리 포구로 향했다. 선두리에는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작지만 정갈한 식당들이 모여 있는데 보통 식당마다 어선을 소유하고 있어서 저렴하고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우리가 찾은 곳은 '보광호 횟집'.



밴대이회 한접시(2만원)를 주문하자 반짝이는 짭짤한 은빛 몸체를 드러낸 밴대이가 가지런히 누워 있다. 밴대이 한 점을 초장에 찍어 입안에 넣어본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살이 담백하고 연해서 무침이나 구이로 먹기 보다는 회로 먹는 것이 제대로 된 식감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처럼

비리지 않지만, 유독 비린 것에 약한 사람이라면, 직접 재배한 유기농 상추와 치커리 등에 싸서 먹으면 안전(?)하다.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걸리면 바로 죽어버리는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밴대이 소갈머리'라는 말까지 탄생시킨 밴대이. 강화 포구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제철 밴대이회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놓치지 마시길...



그리고, 또 한가지, 특히 강화에서 유명하다는 '송어회'. 얼마전 최불암씨가 진행하는 '한국인의 밥상'이란



프로에도 소개가 된 바 있는 송어는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갯벌지역에서 잡히며, 갯벌 속 플랑크톤만 먹고 사는 깨끗한 생선이다. 게다가 수도권 대표적인 송어 어장이 강화라고 하니 인천시민은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산지의 신선한 송어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송어회 한접시(1만5천원, 탕포함 2만5천원)를 주문했는데, 그 양은 성인 3명이 먹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초장에 흰 속살 드러낸 송어회 한 점을 맛본다. 쫄깃하고 쫄득한 식감과 탱탱하고 싱싱한 느낌이 입안 가득 느껴진다. 콩가루 뿌린 양배추와 초장을 넣고 송어회와 버무려 먹어도 별미다. 송어매운탕도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얼큰하며 살도 탱탱하다. 쪽갯향과 싱싱한 바지락, 수제비를 건져먹는 맛도 일품이다. 심지어 송어는 임금에게 진상됐던 음식 중 하나이며, 강화에선 제사상에도 올리는 귀한 음식이라고 한다.

제철 밴댕이와 송어회 한 접시로 임금님 밥상을 받고, 강화도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며 낭만적인 일몰을 감상한다면, 그야말로 임금이 부럽지 않을 최고의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주소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043-19 (가천의대앞 선두선착장 내)
☆ 전화 : 032)937-7111

글 장순지 사진 석종수 연구위원

겉모양만 볼라치면 영락없는 미군부대 막사모양이더군요. 옆에 덩그러니 서 있는 기와 집 카페나 길 건너편에 마주서있는 알록달록 쌍둥이 중국집이 눈길을 더 당길 수밖에.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거기 선두리 야트막한 야산 초입에 미운오리새끼처럼, 거친 민낯으로 덩그러니 서있던 건물. 그러나 한 발짝 들어간 순간 거긴 딱 요지경이었죠. 소리체험박물관. 서울대와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조윤석 관장의 인생 제2라운드 작품입니다. “더 이상 음악을 현장에서 하기 힘들어 마련한 것이지요.” 연주회 포스터에는 바순을 들고 있는 젊은 날의 그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6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영화와 함께 길을 나서다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북경(北京)

북경(北京, 베이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역사 문화도시 중 하나이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國都)로서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며 특히 원(元), 명(明), 청(淸) 3개 왕조에 걸쳐 수도로 있었기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명 전시장'이 되고 있다. 첨단 빌딩과 오래된 낡은 골목의 조화는 북경 특유의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코드를 가진 북경은 여러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소개되고 있다. 1989년에 제작된 영화 <마지막 황제>는 어린 '푸이'가 자금성의 황제가 되지만 서민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금성을 가득 메운 자색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빛깔이며, 동시에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을 상징한다. 황제와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갈수 있어 일반 백성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여 자금성(紫禁城)이라 하였으며, '푸이' 역시 자금성을 나가면서부터 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금성의 정문이자 '천명을 받아서 안정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지어진 천안문은 1949년 모택동이 이 문 위에서 <건국선언>을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1. 베이징의 위치



그림2. 베이징의 위치

그림3. 퇴수산



그림4. 자금성 전경

그림5. 영화 <마지막황제>

1998년에 제작된 중국의 전설 중 하나인 목란사의 주인공 화목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물란>은 흥노족이 만리장성(萬里長城, Great Wall of China)을 넘어오면서 시작되며, 만리장성의 웅장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만리장성을 쌓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만리장성은 군사적인 역할 이외에 문화적으로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 중원과 변방을 가르는 경계선의 역할도 했다. 중국 역대 왕조들이 만리장성에 들인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방어벽으로서 역할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지만, 그 실효성에 관계없이 오늘날 만리장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다.

한국 드라마 <도망자>에서는 양희장과 카이(다니엘헤니)가 만나는 밀회장소로 이화원이 등장한다. 양희장의 대사중 곤명호(昆明湖)라는 인공호수와 그 파낸 흙으로 만든 만수산(萬壽山)을 두고 "세상의 최고의 걸작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이화원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곤명호를 따라 길게 쭉 뻗은 회랑인 장랑(長廊)은 서태후가 비가 오는날에도 곤명호의 정취를 느끼면서 이화원을 산책하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2001년에 제작된 영화<북경자전거>에서는 환경이 다르고 자전거를 갖고자 하는 이유도 다른 두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감독은 그런 자전거를 두고 펼쳐지는 현대 중국 도시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빨간 이층 버스가 런던을 상징하듯 북경의 모습은 자전거로 대변된다. 중국에서의 자전거의 의미는 거의 신발과 같다. 하지만, 신호체계에 대한 인식은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중국은 90년대 자전거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였다. 여전히 천안문광장 앞 도로를 출퇴근 시간이 되면 황하와 같은 자전거의 물결로 넘친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자전거가 생활필수품이며 삶의 한 방식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자전거를 이용한 '인력거'는 현재 북경의 골목거리(후퉁)를 다니며 북경의 소소한 삶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관광코스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의 북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WTO가입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세계 무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오늘의 북경은 이미 현대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모습 또한 공존한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 숨어있는 현재와 과거가 함께 있는 북경만의 모습을 찾아보며 북경을 여행해 보자.

북경(北京, 베이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역사 문화도시 중 하나이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國都)로서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며 특히 원(元), 명(明), 청(淸) 3개 왕조에 걸쳐 수도로 있었기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6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지역 한류관광 실태 및 대응정책 방안

■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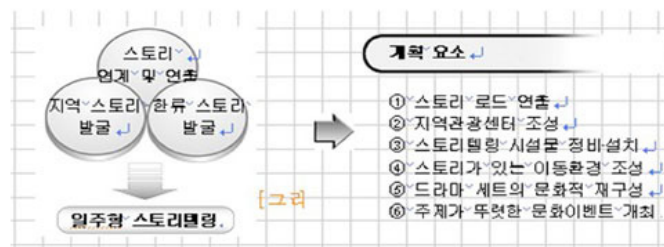
- 이 연구는 2006년 수행된 연구로 당시 드라마세트 방문 형태로 나타났던 인천지역의 한류관광을 개념과 현상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나 관계 군·구 등의 대응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됨.
- 이는 인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광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 연구의 주요 결과

- 영상관광 특성을 보이는 한류관광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이 가지지 못한 인천지역의 입지 강점을 활용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때 인천시와 관계 군·구의 정책 과제는 '한류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어떻게 해당 지역사회의 편익을 제고할 것인가' 그리고 '한류 및 영상 관광을 어떻게 최대한 유지·지속·확산시킬 것인가'하는 것임.
- 연구에서는 통합적 지역관광정책 기획과 마케팅체계 구축 등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인천시의 대응정책을 제안함.
- 전자는 한류관광자원을 포함한 지역 스토리텔링 관광정책 추진과 주민참여형·네트워크형 관광정책 추진의 개념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매크로한 지역관광정책의 관점에서 한류관광자원과 지역관광자원의 연계와 지역사회 편익 창출을 고려한 것임.
- 그리고 마케팅체계 구축은 관광시장의 확대와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지역 내부 마케팅 이해주체를 결합한 통합적 마케팅, 한국관광공사·인천공항공사와의 협력적 마케팅, 그리고 각종 지적재산권 사용권리 확보 등의 사전 기획된 마케팅체계 구축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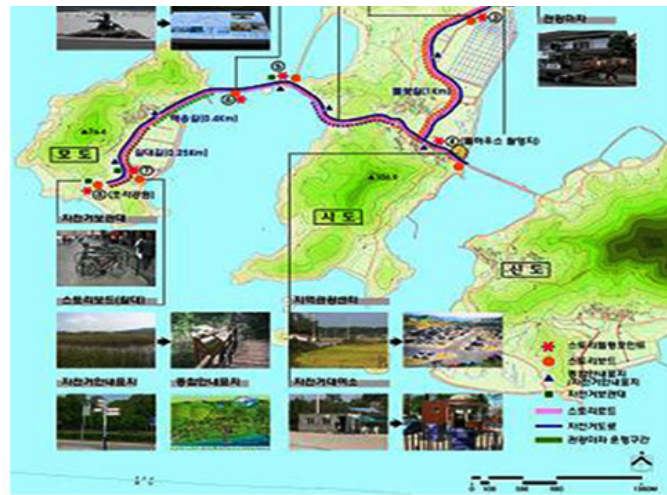
■ 통합적 지역관광정책 기획 : 웅진군 복도면 일원 구상 예시

- 정책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한류관광자원을 포함한 지역 스토리텔링 관광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드라마 풀하우스, 슬픈연가 세트가 소재한 웅진군 복도면 시도 일원을 대상으로 구상계획의 차원에서 제안 정책을 구체화함.
- 제안정책의 개념은 '복도면 시도 일원의 일주형 스토리텔링 관광'으로 규정 하였으며, 스토리 로드 연출, 지역관광센터 조성, 스토리텔링 시설물 정비·설치, 스토리가 있는 이동환경 조성, 드라마 세트의 문화적 재구성, 주제가 뚜렷한 문화이벤트 개최 등을 제안함.



〈그림 1〉 복도면 스토리텔링 관광 기본방향





〈그림 2〉 북도면 시도 일원 관광개발 구상도

■ 연구 의의

○ 한류관광 현상을 매크로한 지역관광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주로 마케팅적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점임.

○ 그리고, 본격적인 의미에서 인천지역의 한류관광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천시와 관계 군·구의 대응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인천 관광' 연구에 기여한 점으로 사료됨.

이 연구는 2006년 수행된 연구로 당시 드라마세트 방문 형태로 나타났던 인천지역의 한류관광을 개념과 현상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나 관계 군·구 등의 대응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는 인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광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illegible]

2006	3	1				1						5
2007	1	1										2
2008	4	4		1	1					2		12
2009	3	2		1	1	1	1			2		11
2010	3	3			1				1			8
합계	22	16	1	2	3	2	1	0	1	4	3	55

드라마 촬영건수도 영화와 비슷한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촬영장소도 중구가 많은데, SBS 드라마 '피아노'에서 "사랑한데이. 역수로 사랑한데이. 알라뷰..."를 외치던 조재현도 중구청 주변에서 촬영하였고, 비와 송혜교가 티격태격 사랑싸움을 벌이는 KBS 드라마 '풀하우스'의 세트장도 웅진군 시도에 세워졌고, 송일국 주연의 MBC 드라마 '신이랴 불리운 사나이'도 인천국제공항, 가정오거리, 인천항, 월미공원, 검단지구, 투모로우 시티 등 인천 곳곳에서 촬영되었음

자료: 인천영상위원회(www.ifc.or.kr)의 보도자료 및 인천촬영작 참조

최근 극장가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감독 추창민)에는 인천의 따뜻한 공간들이 숨어있다. 만석 할아버지(이순재)와 송이뿐 할머니(윤소정)의 사랑이 피어나는 가파른 언덕길은 인천의 남구 송의동이며, 만석 할아버지가 송이뿐 할머니를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시켜주기 위해 만석의 손녀 연아(송지효)와 함께 애쓰는 장면은 남구의 용현 3동 주민센터에서 촬영되었으며, 치매인 아내를 보살피는 군봉(송재호)이 혼자 살 용기가 없다고 만석에게 고백하는 곳은 인천의 을왕리 해수욕장이다.